

# 공무원-교사 “정권 퇴진” 시국선언

### 전국 4만여명 참여·전북권 교사 2200여명 동참... 전북시국회의 “대통령 책임의 전제조건은 ‘퇴진’”

전북시국회의 등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들까지 이에 동참했다.

공무원과 교사가 연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공무원 1만7,432명, 교사 2만4,768명 등 4만2,200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전북권 교사 2,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법이 유린되고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현실에서 교사·공무원이 갈 길은 국가권력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국의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현 정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국가권력의 폭력과 횡포, 헌정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목도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시대의 한복판에 나선다”며 “정권은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고 자본의 끝 모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를 마름으로 부리며 충성만을 강요해왔지만, 우리는 불의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와 함께 304명이 수장될 때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으며 부당해고에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의해도, 공공부문 위주화로 밥 먹음도 없이 노동해야 했던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죽음의 일터에서 숨져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야말로 나라꼴이 엉망이요, 총체적인 파국”이라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쟁교육을 외려 강화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기는커녕 존장난질로 지방교육자치 길들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급기야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듦으로써 교육을 아예 정치권력의 시

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시국회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전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내내 동성애 호소할 뿐, 헌정질서 유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이

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미적대고 시뮬만 하던 검찰, 각종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게 방치한 검찰,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일 없다는 것이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이라며 “대통령 수사와 현 시국에 대한 책임의 전제조건은 박정권의 퇴진임을 강조하며 향후 일정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체계 개선

###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 비상호출체계 정비, 시설·인력·조직 보강 등 대책 내보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된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울지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4일 전북대병원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통사고로 다친 두 살배기 아이가 이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해 사고 7시간 만에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권역 응급센터, 권역 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병원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과목 간 협력체계를 개선기로 했다.

특히 응급실 비상호출 체계 정비와 권역응급센터 시설 및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등 개선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학회·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과 헬기 이송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해당 병원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더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도, 통합 재난대응 역량 높인다

### 통합 재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황을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북도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 분산 돼 있는 기상관측 정보와 재난경보시스템 정보를 앞으로는 통합관리 운영된다.

이에 기상관측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연계시스템이 지난 7월부터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14개 시·군의 우량계와 적설계 등 기상관측장비 236개소의 관측 값은 1분 단위로 실시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자동음성통보시설 1,275개소를 연동시켜, 현장에서 각종 재난경보방송이 발령되는 상

황을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급할 경우 도에서도 재난경보를 직접 발령하거나 재난담당자와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는 통합 재난경보방송 운영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특정지역의 강우량이나 수위가 위험수치에 이르면 해당 지역 재난담당자와 지역주민에게 재난경보가 자동 발령되게 하는 재난상황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도 관계자는 “통합 재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정보공유와 공동 활용이 수월해진다”면서 “통합재난대응 역량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2016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성료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12일간 주얼팰리스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 2016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많은 관람객들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주얼팰리스협회(회장:정춘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201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016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 기간에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더욱 불러 모았다.

축제 기간에는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60여개 업체의 화려한 보석들이 30% 특별 할인(24k, 다이아몬드 제

외) 판매됐다. 희귀보석 특별전시, 보석 리세팅, 보석가공 시연 및 체험,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특성화사업단 운영 등 다양한 보석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보석대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인 주얼팰리스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는 행사지만 이번 축제는 2016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방문객 참여형 행사가 마련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만들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나 벌금이나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꼼꼼이 준비해야

연말정산은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 등 다른 상품에 넣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자녀 교육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준비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꼼꼼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액도 공제가능하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도 챙기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 등 다른 상품에 넣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자녀 교육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또 누구에게는 13월의 벌금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바로 ‘부양가족’이다. 근로자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섰다면 이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과도한 농가부채로 어려움이 많으신지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농작업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주고, 매일 농지는 부채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며, 최장 10년간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법(法)으로 보장합니다.

- 1.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 지원대상자**
  -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 지원대상자 : 76세 이상농가, 상가 또는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자 등
- 3. 매입대상 농지**
  -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과, 수목 제외)인 농지
  -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 4. 지원조건**
  -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실거래가 기준)
  - ▷ 연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 ▷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 환매기간 :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환매신청 가능, 부분환매 가능
  - ▷ 환매가격 : 환매시점 감정평가금액과 연간 3%의 농지매입가격을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
- 5. 지원효과**
  - ▷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 고율이자 및 연체이자, 세금 등 부담경감
  - ▷ 대출금 상환고지서, 독촉장, 법적 조치 예고장 등 스트레스 해소
  - ▷ 빚내서 빛을 갚거나 농지를 팔아 빚 갚는 막대한 적절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063) 270-052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